



제목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애플미디어
발행일	2012. 10. 10.
저자	앤드류 망고 박영완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648
ISBN 또는 ISSN	978-8996899341

내용 요약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의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국부로 칭송받는 아타튀르크의 일대기이다. “영웅인가 독재자인가”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아타튀르크에 대한 평가를 해명하기 위한 글이다. 외부 세력과 이슬람 지도자들은 15년의 장기 집권과 세속주의 정책을 시행한 아타튀르크를 ‘독재자’로 비판하고 있다. 쿠르드와 같은 반터키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쿠르드족 학살 정책의 책임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터키 국민들은 터키 민족의 문화와 자력 향상, 외세 배격 정책으로 인해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다. 저자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다. 저자는 그를 결점 없는 강한 의지와 빈틈없는 판단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평가한다.

책은 성장기, 길고 긴 전쟁, 건국을 향한 의지, 공화국 건국과 개혁, 독재자 등 5부로 구성되어 있다.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오스만 제국은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되면서 영토 분할을 경험하였다.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자 그들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기독교인들은 독립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튀르크의 지도자로 부상한 인물이 아타튀르크였다. 그는 오스만을 약화시키고자 한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튀르크만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힘을 한 곳에 집중시켜 국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독재 정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의 관념과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으로 그는 국부로 칭송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저자는 “아타튀르크는 뛰어난 지휘관이었으며, 예리한 정치인이었고, 현실주의적인 통치자였으며, 계몽주의자”라고 평가하였다. 터키 측 자료에 의존하여 터키의 시각에서 아타튀르크를 평가하였다는 점에 이 책의 의의가 있다.